



DAESHIN
UNIVERSITY

大神學報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
대신대학교

• 학문으로 준비된 지도자 양성 • 경건으로 훈련된 신양인 양성 • 사랑으로 헌신된 봉사자 양성 •

발행인 최대해 주간 양신혜 편집장 김신향 / 제50-51호 2018. 6. 15 / <http://www.daeshin.ac.kr> /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TEL. 053-810-0701~3

대신대학교 63회, 15회 학위수여식



2018년 2월 12일(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제63회 대신대학교, 제15회 대학원 · 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사회는 본교 운영이사장 김장교 목사가 맡았으며, 기도에 재단 이사 박현규 장로, 성경봉독에 운영이사 박태경 목사가 순서를 맡았다.

이날 총회장 전계현 목사는 마 10:16절을 통해 “보냄 받은 그대여,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후 김재국 박사에게 명예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했으며, 여러 학생들이 분야별로 상을 받았다. 최대해 총장의 훈사, 재단이사장 장창수 목사의 치사,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의 축사와 함께 졸업생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증경총회장인 박무용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으며, 학위수여를 받은 학생은 문학사(B.A.) 50명, 음악학사(B.Mus.) 22명, 명예신학박사(H.Th.D.) 1명, 철학박사(Ph.D.) 1명, 신학석사(Th.M.) 2명, 문학석사(M.A.) 1명, 음악학석사(M.Mus.) 1명, 목회학석사(M.Div.) 45명, 목회신학원 15명 총 138명이었다.

김신향 편집장

2018 대신대학교 입학식

2018년 3월 2일(금)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입학 ·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날은 본교 부총장인 황봉환 교수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기획처장인 서길수 교수가 대표로 기도하였으며, 음악학부 류진교 교수가 특송을 해주셨다.

최대해 총장은 출 3:1-12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후 신입생 대표로 신학대학원 1학년 강의진 원우의 신입생 선서와 재단이사장 장창수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또한 29년 동안 본교를 섬기신 박준향 학생처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재단이사장 장창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본교는 학부 116명, 편입 87명, 신학대학원 61명, 목회신학원 8명 총 276명이 입학하였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교직원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많은 신입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김신향 편집장



대신대학교와 함께 할 인재를 초빙합니다

1. 전임교원

학과	전공분야	인원
신학과	신약신학	각0명
	구약신학	
	조직신학	

▷ 지원 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www.daeshin.ac.kr)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① 접수기간 : 2018. 6. 11(월) - 6. 29(금) 15:00시까지
- ② 접수처 : (우)38649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대신대학교 교무 인사담당자 앞

☎(053)810-0717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대신대학교 방문예배

황인철 목사 방문



지난 3월 6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남부산교회의 황인철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김광수 교수(교수)가 수고하였다.

황인철 목사는 신 20:1-14절을 본문으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김정일 목사 방문



지난 3월 8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고든 캐일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양승희 교수(교수)가 수고하였다.

김정일 목사는 시 73:28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최영태 목사 방문



지난 3월 13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신학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김정일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최명태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김성빈 교수(교수)가 수고하였다.

이관형 목사 방문



지난 3월 14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은혜로교회 이관형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박윤수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박재환 교수(교수)가 수고하였다.

박윤수 목사 방문



지난 3월 15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구성덕교회 박윤수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이관형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박재환 교수(교수)가 수고하였다.

박봉만 목사 방문



지난 3월 27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은혜로교회 박봉만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최명태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박재환 교수(교수)가 수고하였다.

민남기 목사 방문



지난 3월 28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종회 군종선교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종회군목 단장 황성준 목사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이경미 대표기도는 종회군부 회계 신영수 정로가 수고하였다.

총회군부 부장 민남기 목사는 요10:7-15절을 본문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권희찬 목사 방문



지난 4월 3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자인교회 권희찬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이경미 대표기도는 이경미 대표기도는 신영수 정로가 수고하였다.

권희찬 목사는 민18:1-7절을 본문으로 “나는 선율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김남준 목사 방문



지난 4월 4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신대원 원우회장이 수고하였다.

김남준 목사는 요21:15절을 본문으로 “실패한 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박태경 목사 방문



지난 4월 5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선서회 일교회 박태경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신대원 원우회장이 수고하였다.

박태경 목사는 히11:13-16절을 본문으로 “출장 중인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김문훈 목사 방문



지난 4월 10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김영란 원우회 회장이 수고하였다.

김문훈 목사는 시78:70-72절을 본문으로 “은혜 안에 살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관영 목사 방문



지난 4월 11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영천문화회관 이관영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한현숙 총학생회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김영란 원우회 회장이 수고하였다.

이관영 목사는 고후11:22-27절을 본문으로 “영성, 애성, 정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대경노회 방문



지난 4월 24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경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서기 김상태 목사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부노회장 김세우 장로가 수고하였으며, 성경봉독은 회록서기 김태성 목사가 수고하였다.

대경노회 노회장 김강교 목사는 녹2:22절을 본문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는 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후 학생들을 위해 칭찬금을 전달해 주셨다. 대경노회 부노회장 김두중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진홍 목사 방문



지난 4월 25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구구교회 김진홍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신대원 원우회장이 수고하였다.

김진홍 목사는 창29:31-35절을 본문으로 “레이아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상윤 목사 방문



지난 4월 26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인증교회 이상윤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신대원 원우회장이 수고하였다.

이상윤 목사는 요15:1-7절을 본문으로 “믿음이 없다는 책망 앞에서”라는 제목의 본문으로 “재활용 하시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두형 목사 방문



지난 4월 27일 금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서인천제일교회 이두형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대의원 의장이 수고하였다.

이두형 목사는 마8:23-25절을 본문으로 “믿음이 없다는 책망 앞에서”라는 제목의 본문으로 “재활용 하시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경청노회 방문



지난 5월 1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경청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대의원 의장이 수고하였다.

경청노회 노회장 이찬선 목사는 행5:51-60절을 본문으로 “스데반 설정수 목사는 시118:21-23절을 같은 사역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본문으로 “재활용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후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설정수 목사 방문



지난 5월 2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옥산교회 설정수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회장이 수고하였다.

설정수 목사는 마8:23-25절을 본문으로 “믿음이 없다는 책망 앞에서”라는 제목의 본문으로 “재활용 하시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재범 목사 방문



지난 5월 8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구남부교회 이재범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회장이 수고하였다.

이재범 목사는 고후5:13-14절을 본문으로 “불광불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정정용 목사 방문



지난 5월 9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신촌교회 정정용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정정용 목사는 계3:2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정정용 목사는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회장이 수고하였다.

한수환 목사 방문



지난 5월 10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서울시영교회 한수환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한수환 목사는 미주비전트립 김정호 전략팀장이 수고하였다.

한수환 목사는 삼성9:14-17절을 본문으로 “지도의 실력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경증노회 방문



지난 5월 15일 화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경증노회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회장이 수고하였다.

경증노회 회복서기 김정화 목사가 수고하였다.

곽양구 목사 방문



지난 5월 16일 수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파동창대교회 곽양구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회장이 수고하였다.

곽양구 목사는 미주비전트립 한현숙 목사가 수고하였다.

최동현 목사 방문



지난 5월 17일 목요일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포항지구총교회 최동현 목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황봉환 부총장이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회장이 수고하였다.

최동현 목사는 대강당에서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PIANO FORTE CLUB 20th Recital “For Two Pianos”

4월 17일 화요일 7시 30분 대구 우봉아트홀에서 제 20회 피아노포르테클럽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전석초대로 진행되는 올해 프로그램은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4개의 피아노 듀오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곡으로는 C. Guastavino : Tres Romanes Argentinas가 연주되었다. 1.Las Ninas de Santa Fe, 2.Muchacho Jujeno , 3.Baile en Cuyo. 아르헨티나로 믿어지는 뜻이고 3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곡 제목처럼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잘 느껴졌다. 민속음악의 영향을 받아 남미의 텅고같은 느낌이 느껴지기도 했다.

첫 번째 무대가 끝났고 오은주 교수의 연주가 이어졌다. 미리 프로그램 팜플렛을 받아 봤을 때 제일 기대가 되는 곡이었다. 바로 F. Liszt : Mazeppa이다. 극악 난이도의 피아노 곡을 감히 '연습곡'이라 이름붙인 작곡가 리스트(Liszt)의 바로 그 곡 '초절기교 연습곡'의 4번곡의 이름이 바로 Mazeppa이다. Mazeppa는 빅토르 위고의 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의 이름인데 리스트는 곡목을 여기서 따랐다고 한다. 훌륭하게도 너무 어려운 곡인데 듀오로

한다니, 그만큼 곡의 웅장함과 화려함도 두 배로 느껴졌다. 두 분이 얼마나 많이 연습하셨는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무대였다. 15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연주였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곡에 빠져들어서 같이 즐길 수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두 번째 무대가 끝이 났다.

바로 이어지는 곡은 역시나 기대를 많이 했던 W. Bolcom, "The Garden of Eden"이다. 현재까지 현존하는 미국 작곡가 윌리엄 볼콤이 작곡한 에덴의 동산(The Garden of Eden)은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동산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으며, '그 옛날의 이 adam, 영원한 여성(이브), 벌의 키스', '에덴의 문으로' 총 4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연주에서는 '에덴의 문으로' 곡을 뺨 나머지 3개의 곡만 연주되었다. 이 작품은 레그나임 스타일로 불콤 특유의 재즈스타일의 밝고 통통 튜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곡이다. 제일 인상 깊었던 곡인 마지막 곡은 3.The Serpent's Kiss(뱀의 키스)이다. 곡 제목에 걸맞게 네 곡 중 가장 화려한 곡이며 연주자들이 박자에 맞춰서 발을 구르고 피아노를 두드렸다. 이처럼 현대기법들이 나타난 작품이다.

음악학과 변희옥 기자



음악학부 정기연주회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2018년 5월 25일 수요일 7시 30분, 우봉아트홀에서 제28회 대신대학교 음악학부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클래식 연주회인 만큼 성악, 퀼트, 오르간, 피아노,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오르간의 연주로 연주회가 시작되었다. 신학과 김영란 학생은 오르간을 복수전공하며 연습 끝에 무대에 올라 J.S. Bach - Organ Concerto in A minor, BWV 593 - I. Allegro(바흐 - 오르간 협주곡 A단조)를 연주하며 좋은 무대를 보여주었다. 다음무대는 퀼트전공 서승아 학생이 P. Taffanel - Grande Fantaisie Sur Mignon을 연주했다.

성악과 최보경 학생은 'Agnus Dei(하나님의 어린양)'를 부르며 영광을 돌렸다. 다음 이어진 무대에선 피아노듀오의 주제곡, 변희옥 학생이 Piazzolla - Libertango for two pianos 를 연주하여 탱고리듬으로 몸을 틀썩이게 했다.

퀼트전공 남인식 학생이 F. Borne - Carmen Fantasy on Themes from Bizet's Carmen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더하였다. 이어서 성악과 김고은 학생이 G. Puccini - Opera 《La Boheme》 중 Quando m'en vo라는 곡을 연주했고 최보경, 김고은 학생이 깜찍한 고양이 가면을 쓰고 새침하고 양 ---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김성빈/이명신 듀오 리사이틀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7시 30분, 계명대학교 아담스 채플에서 김성빈/이명신 듀오 리사이틀이 열렸다. 테너 김성빈, 오르간 이명신 교수님이 연주이며 전석초대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성악과 오르간이 함께 어우러진 아주 특별한 연주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며 미사(예배전례에 따라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연주회는 전례에 따라 Kyrie(자비송), Gloria(영광송), Credo(신앙고백), Sanctus(거룩하다), Benedictus(복 있도다), Agnus Dei(하나님의 어린양) 순서로 열린다.

첫 번째 곡으로는 오르간곡인 복스테후데(D. Buxtehude)의 토타 F 장조 BuxWV156(Toccata in F major, BuxWV156)이 연주되었다. 자비송과 영광송은 오르간 반주와 성악이 함께한다. 구노(Ch. Gounod)의 아, 용서하소서(Repentir), 다음 곡으로는 핸델(G. Handel)의 곡들이 이어졌다. 미사(Aria from Oratorio 《Messiah》), 내 백성은 위로하라(Comfort Ye My People), 모든 골짜기 높이지리라(Every Valley Shall Be Exalted)까지 마친 후 Credo(신앙고백)은 오르간만 연주된다.

뜨거운 함성과 환호가 터져 나왔고 악기를 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악풀곡으로는 주기도문이 연주되었고 관객들은 끝까지 연주에 몰입했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많은 학우들과 다른 교수님들도 참석해서 교수님께 아낌없는 축하를 해주셨다.

아주 오래전 중세의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여 예배 전례를 만들었고 그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각 전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 연주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좋은 연주를 위해 수고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곡은 바흐(J.S. Bach)의 이것은 성스러운 십계명입니다(Dies sind die heiligen zehn Gebot)BWV678과 투르느미르(Ch. Tournemire)의 '어린양의 희생'곡조에 의한 코랄 즉흥연주(Choral-Improvisation sur le "Victimae paschali")이다.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해 주었다.

연주는 곧 합창으로 이어졌다. 곡은 사랑, Gloria in excelsis, Kyrie, Gaudeamus! 순서로 연주되었고 Kyrie라는 곡은 드럼과 마린바 소리로 리드미컬한 느낌을 살렸고 마지막 곡까지 드럼이 함께 하여 곡의 느낌을 관객들에게 더 잘 전달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악기를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합창을 지휘하신 최희철 교수는 "믿음과 소망은 내 자신의 것이지만 사랑은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함께 전하시며 사랑이라는 곡을 들려주었다.

모든 연주가 끝나고 연주자를 모두 나와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연주자들이 응원하기 위해 교수님들과 많은 학우들, 연주자들의 가족, 친구들이 참석했다. 모두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많은 축하 속에 정기연주회가 끝이 났다. 연주자들 모두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것을 이날 무대에서 쏟아냈다. 힘들었던 지난날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이다. 연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연주자들과, 무대 뒤에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자기 일처럼 신경써준 학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 학우들이 없었다면 완벽한 무대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날 연주회는 서로 도우며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모두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음악학부가 되길 바란다.

음악학과 변희옥 기자



재미있는 연주가 끝났고 마지막 무대인 J. Brahms : Variations On A Theme By Haydn Op.56b 이 연주되었다.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며 그의 변주곡 중 최고의 작품으로 알려진 곡이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적극되어진 곡이며 진행이 비슷하지만 약간씩 변형되어 연주된다. 전전하면서도 슬펐고, 신나는 분위기로 바뀌기도 했다. 이 연주는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연주회가 끝난 후, 각 선생님들, 교수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단체 사진촬영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늘 좋은 연주를 들려주신 선생님,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오늘 이 연주는 학생들, 관객들에게는 눈과 귀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었다고 생각한다. 연주회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한다는 점을 깨닫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

음악학과 변희옥 기자

사랑의 연탄 나누기



2017년 12월 21일(목) 대신대학교와 달성연탄은행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하였다. 이날 30명의 학생들과 직원 및 교수들이 참여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었다. 연탄은 가창에 두 집을 방문하여 500장씩 총 1000장을 함께 나누었다.

방학 중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학생들이 자원한 이 행사는 대신대학교 직원들 뿐 아니라 교수도 함께 참여하여 대신대학교의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는 작은 사랑의 나눔이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장 한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실천하는 마음으로 연탄을 전달했다. 모두의 장갑을 끈 손이 새까맣게 물들고 매서운 겨울바람에 불은 차가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깨끗해지고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김신향 편집장

봉사동아리 “봉사의 기쁨을 나누어요”

Diakovia

2018년 5월 18일 디아코니아 봉사동아리에서는 반월당 현혈의 집에 가서 현혈봉사를 했다. 그리스어로 봉사라는 뜻인, Diakovia에서 나온, 디아코니아 봉사동아리는 지난 2017년에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자회, 현혈 등 다양한 봉사를 하였고, 이 가운데에서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을 만나며 우리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웃에 대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번 현혈 봉사에는 지난번 보다 참석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현혈을 함으로써 내 피가 다른 곳에서 소중히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다. 몸은 지치고 힘든데,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얻고 가는 느낌이 크다고 모두들 말한다. 이것이 봉사의 기쁨일 것이다. 앞으로 디아코니아 봉사동아리를 통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진정한 봉사의 기쁨을 느끼고 갚으면 좋겠다.

우리 주위에는 봉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매우 많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할 마음을 가진 많은 학우여러분들을 디아코니아 봉사동아리에서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학과 강소영 기자



성폭력예방교육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지난 4월 6일 금요일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서 오신 고경자 강사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러 왔다. 고경자 강사는 여성들의 과거에 대한 인식과 지금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하며, 성폭력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13%의 비율이라고 전하였다.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거론하시면서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여성과 성폭력에 관한 사고를 확장 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보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역설하였다. 요새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만 성추행과 성폭행의 가해자라는 것도 이제는 고정관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노출 되어있는 사람이 의외로 그 수가 많다고 하였고, 그걸 폭력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만약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숨은 그림 찾듯이 자세히 주변을 찾았으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사실 주변에 보면 가정에서 성폭력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못하고 조용히 있는 경우도 있다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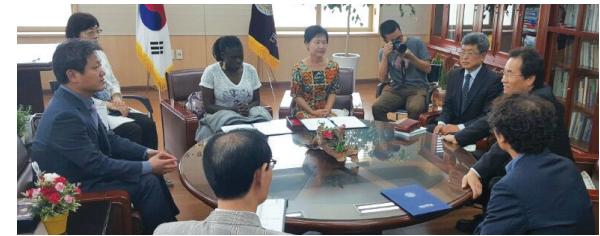
이러한 문제는 사회가 계속 변화됨에 따라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성폭력의 종류도 다양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처가 필요하다. 정확한 의사표현과 거부의사를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하고,

우리 이웃에게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어떤 경우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폭행을 당한 것을 드러내어 빨리 해 결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과 강소영 기자



대신대학교 아프리카 음악대학 MOU 체결



대신대학교(총장 최대해)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위치한 아프리카 음악대학(학장 박마리아)과 2018년 5월 25일 대신대학교 총장실에서 양 교간에 교류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앞으로 두 학교는 MOU를 체결함으로서 두 대학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교육,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찬양 노방찬양 동아리



매주 수요일, 대신대학교 인문관 앞에는 찬양소리가 울려 퍼진다. 피아노나 드럼 같은 악기조차 없다. 목소리가 악기이다. 햇살이 따갑게 비치는 날에도 찬양이 들린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에도 역시 그 찬양은 멈추지 않는다. 열정을 멈출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Bride of Worthy Is the Lamb(존귀한 어린양의 신부)이라는 신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버스킹 동아리이다. 다양한 학년의 신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이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의 학생들이다. 그들은 점심을 먹으며 휴식을 가지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기꺼이 사용한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한다. 채플 시간에만 들리는

신학과 조효원 기자

학/술/세/미/나 사회적 담론에 대한 기독교적 방안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대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주최로 '사회적 담론에 대한 기독교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대신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반야월교회 담임목사 이승희 부총회장의 축사를 학술대회를 시작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세 개의 논문 발표가 실시되었다. 충신에서 오신 이상원 박사가 첫 번째 시간을 맡았다. 이상원 박사는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시대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윤리 문제를 다뤘다. 지금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인간이 가진 모든

정신기능을 곧 지성, 감정, 의지, 자유로운 선택능력까지 가진 인공지능이다. 사람이 이러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유는 이상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인데, 문제는 이상향을 향해 순조롭게 가다가 결국 인간의 죄성이 이를 더 망쳐버리고 반 이상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상원 박사의 논문의 내용이었다. 논문 발표가 끝나자 대신대학교 황봉환 부총장이 논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논문 발표가 끝나고 우리는 반야월교회에서 제공하는 갈비탕과 정성스럽게 준비된 과일들을 먹었다.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곧



신학대학원 이상현 기자

한국번역학회 2018 봄 학술대회



지난 4월 21일 토요일에 본교에서 한국번역학회의 2018 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10년 만에 수도권 이외의 장소인 대구에서 열린 만큼 뜻깊은 행사였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였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행사를 진행했다. 본교 최대해 총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해주었다.

김순영 회장의 개회사로 학술대회가 시작되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번역학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뮤지컬 자막', '화면해설', '통역학 연구방법론',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불경번역에서의 문제', '자막번역에서의 젠더' 등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토론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장 김신향

다시 두 번째 시간으로 돌입했다.

두 번째 논문은 총신대학교 강미랑 박사가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카테키스의 교육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카테키스라는 말은 '신앙교육'이라는 말이다. 이 논문은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 종교개혁 시대 등등의 역사를 다루며 지금까지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칼빈이 말하는 신앙교육에 대해 심화 있게 다룬 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카테키스를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 논문 발표가 끝난 후 대신대 이병일 교수가 논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문은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권호 박사가 "본문이 이끄는 설교"라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설교 강단에서 일어나는 '본문이 탈 현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가 본문에서 시작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단에 울려 퍼지길 소망하며 우리에게 논문을 발표해 주셨다. 이어서 대신대 이승우 교수가 논평하였다.

모든 시간이 끝나고 황봉환 부총장의 총평과 기도로 학술대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고민해보지 않았던 인공지능과 교회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의 현실과 그리고 설교 강단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 개의 논문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신학대학원 이상현 기자

교수논단 한국교회 찬양예배 수용기(受容記)

이야기를 하나 지어내는 것으로 글을 시작할까 한다.

어느 이름난 아름다운 성읍의 높은 망루에는 파수꾼이 있었다. 밤을 꼬박 새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를 더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멀리 성을 향해 오는 한 사람이 보인다. 그의 걸음이 성읍을 향해 가까워지도록 파수꾼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생김새와 복색으로 미루어보아 서쪽나라 사람인 듯한데, 뭐하는 사람이며 그가 끌고 오는 마차에는 무엇이 실려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기에 더더욱 면밀히 관찰한다.

이윽고 성 앞에 다다른 그가 안으로 들어 보내주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들어보내도 될지, 일단 기다리게 해야 하는지, 돌려보내야 할지 주체가 되면 세속화라는 식의 이분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는 늘 이원화된 입장이 있어 왔다. 전통과 개혁의 문제는 비단 가톨릭과 개신교회를 구분 짓는 잣대 그 이상의 내부적 동력원이었다. 이 오랜 맞수는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진취적으로 이끄는 자정원이기도 했고,

현대화(Modernization)와 세속화(Secularization)의 기로에 선 한국교회는 내내 주체의 문제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겨 왔다.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되면 현대화, 세상이 주체가 되면 세속화라는 식의 이분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는 늘 이원화된 입장이 있어 왔다.

전통과 개혁의 문제는 비단 가톨릭과 개신교회를 구분 짓는 잣대 그 이상의 내부적 동력원이었다. 이 오랜 맞수는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진취적으로 이끄는 자정원이기도 했고,

문화지만 문화가 아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된 경배와 찬양 운동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과 논란 속에서 예배에 대한 인식과 형식의 변화 뿐 아니라 한국교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을 변화으로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대적 찬양예배의 유입은 최소한 한국 교회 전체 분위기의 변화를 촉발시켰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예배를 본질로 보느냐, 형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이견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본질을 사수하고자 하는 이들은 예배 형식의 변화를 두고 '본질의 변질'로 확대해석할 것이고, 형식의 변화에 민감한 이들은 전통적 예배 방식의 고수를 '본질을 오해'한 형식의 우상화로 치부하기도 한다. 예배를 유행이나, 트렌드로 인식하는 가벼움도 문제지만, 예배 형식을 불변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 또한 유연하지 못한 태도다.

모든 신앙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각자의 정의(定義)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예배란 '엄숙', '경건', '거룩', '정결'로 정의한다. 또 어떤 이는 예배란 '자유', '기쁨', '열정', '축제'로 정의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정의에 따라 예배하기 마련이고, 자신과 다른 정의를 가진 이의 예배가 충분히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예배 방식이 진짜 예배라 믿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개인의 예배 정의에 따른 형식의 상이는 서로 간의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음악과 민호기 교수

동시에 갈등과 분쟁의 근원이기도 했다.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변화에 대한 날선 '검열자'는 많되 좋은 '관찰자'가 없다는데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장의 현상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금한 검열자에 비해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지켜볼 줄 아는 진지한 관찰자가 더 무너지지 적다는 사실이다. 검열자와 관찰자 사이에서 한국교회는 언제나 스스로 완고한 검열자이기만을 원했다. 그러나 결코 지치지도 않고 포기도 모르는 세속적 대중문화의 위암 앞에 결국은 종속적 소비자로 전락해 버린다. 혹은 관찰하기를 계울 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기보다 이미 유입된 현대적인 문화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혐오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내려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조차 더 이상 심각한 논쟁거리로 다뤄지지도 않는다. 이미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전자악기들이 연주되고 있는데 자꾸 말하면 무엇 하냐는 식의 체념적 태도는 충분한 관찰과 겸종의 결과가 아닌 무비판적 대세의 수용에 불과하다. 그토록 본질과 전통을 부르짖으며 성경에 근거해 전자악기를 반대하던 장로님들이 어느 순간 별 거부감 없이 드럼 반주에 맞춰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은 묘한 이질감을 준다.

예배는 변화의 주체이며 동시에 변화의 대상이다. 예배는 성도의 말과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의 부흥을 이끌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체가 된다.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완전하신 분을 향한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한국교회는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2017학년도 2학기 발전기금

대신대학교 발전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대학교는 이 도움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지역 교회 부흥과 국가와 민족과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후원계좌번호

- 농 협 : 761-01-144235 (예금주 : 대구신학원)
 - 농 협 : 301-0144-8182-21 (예금주 : 대신대학교)

※ 제 공 : 대신대학교 발전위원회

※ 여러분의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서류를 원하시면 대신대학교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 053-810-0808

▶ 후원금 현황 (참여기간 2017.09. ~ 2018.02.) ▶ 총 후원금액 : 329,675,000원

정회

가창교회 경산교회 경산삼성교회 경산중앙교회 경애교회 계당교회 고락교회 고산중앙교회 광명교회 구미상모교회 구미서부교회 길안중앙교회 나눔과섬김의교회 낙산교회 남부교회
남원교회 내일교회 달서교회 대구대동교회 대구대성교회 대구대영교회 대구동부교회 대구동산교회 대구동성교회 대구목자교회 대구부광교회 대구삼성교회 대구서문교회
대구성일교회 대구수산교회 대구영신교회 대구칠곡중앙교회 대구침산제일교회 대구평리교회 대구평안교회 대도교회 대명교회 대봉제일교회 대성교회 대율교회 대흥교회 동령교회
동막교회 동신교회 동행교회 드림교회 만성교회 박사교회 반계교회 반야월서부교회 반야월중부교회 봉덕교회 북삼제일교회 북일교회 사수교회 상모교회 서대구교회 서성로교회
선민교회 설화교회 성광교회 성덕교회 성도교회 성서교회 성서중부교회 성주중앙교회 소망교회 시온교회 신일교회 안심교회 열린문교회 영신교회 영주교회 영천동부교회 예일교회
오천제일교회 오촌교회 온세상교회 와촌교회 왜관교회 울산반석교회 울산서현교회 은평교회 의성교회 의송교회 이가교회 이서교회 자인제일교회 점촌제일교회 진주성남교회
참좋은교회 청도대성교회 청도수야교회 초곡교회 초원교회 큰숲교회 탑리교회 태평교회 파동창대교회 팔달중앙교회 포남교회 포항지구촌교회 풍기제일교회 하양교회 행복한우리교회
황금교회

사회 및 단체

경청노회 경청노회기독청장면려회연합회 김천노회 남대구노회 대경노회CE 대구경북장로회 대구극동방송 대구노회 대구동노회 대구수성노회 대구장로회 대구중노회
대구지역장로회연합회 대구청장년면려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박언휘내과의원 서대구서노회 수성노회남전도회 수성장로회 안동노회 영남지역장로회 (주)창대건설 (주)창대특수화물
총동창회 지아이(화물주) 하베림

개인 기부자 명단

Ajay Kumar arjyal 갈경순 강경미 강경숙 강경희 강계태 강광술 강대웅 강명애 강병수 강복례 강순금 강영균 강영숙 강원진 강은경 강은수 강은전 강이환 강정현 강창미 강창진
강필옥 강혁주 강현숙 고성현 고용환 고정미 고주석 고호림 공귀숙 공동현 곽명숙 곽무생 곽손석 곽인현 곽태연 곽해정 구금화 구명보 구본수 구본익 구서군 구순옥 구자덕 구장희
구정순 구형숙 권경도 권경찬 권기조 권나현 권명희 권병복 권사무엘 권성민 권수남 권수형 권순자 권영미 권영복 권의열 권정애 권정열 권진혁 권태범 권태웅 권해연 권현숙
권현옥 권현주 권형철 금은주 김경 김경대 김경란 김경숙 김경순 김경자 김경호 김관식 김광배 김광석 김광수 김광식 김광옥 김귀숙 김규리 김규형 김규환 김금옥 김금자 김기현

김길순 김나나 김난영 김남희 김년호 김다정 김대수 김대식 김대현 김덕선 김도훈 김말희 김명남 김명순 김명예 김명희 김묘선 김무성 김문락 김미선 김미숙
김미자 김미정 김미혜 김민련 김민지 김복녀 김복란 김복수 김복자 김봉열 김봉출 김분남 김분노 김분자 김상규 김상목 김상봉 김상숙 김상윤 김상화 김서경
김선숙 김선영 김선옥 김선칠 김선희 김성구 김성빈 김성수 김성실 김성은 김성일 김성준 김성현 김성호 김성훈 김선희 김세업 김세영 김세정 김소옥 김수정 김수진 김수철
김순남 김순덕 김순란 김순례 김순애 김승동 김승준 김시창 김시현 김신경 김신길 김신욱 김신희 김애란 김애욱 김양희 김연희 김영규 김영림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식 김영옥 김영진 김영화 김영희 김예은 김옥 김옥복 김옥선 김옥이 김옥자 김요한 김용배 김용준 김용필 김용호 김용휘 김용희 김운학 김유경 김유신 김윤경 김윤옥
김은경 김은숙 김은순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혜 김은희 김의진 김익순 김인규 김인수 김인홍 김인화 김인환 김자준 김장수 김재선 김점출 김정남 김정민 김정선
김정순 김정애 김정옥 김정자 김정진 김정한 김정해 김종균 김종례 김종숙 김종신 김종우 김종원 김종평 김종해 김종환 김주식 김주은 김주필 김주희 김중석 김중철 김지애
김진숙 김진실 김진일 김진홍 김차남 김차수 김찬연 김창균 김창수 김창엽 김창희 김채영 김천일 김철수 김춘연 김춘옥 김춘자 김춘희 김태돌 김태선 김태웅 김태원
김태환 김태희 김필선 김하람 김학권 김한기 김한나 김한수 김해숙 김현덕 김현두 김현아 김현우 김현정 김형미 김형일 김형호 김혜란 김혜영 김혜정 김호건 김홍욱
김화선 김희성 김희원 나복선 나채득 남궁면 남대하 남동자 남명혜 남미임 남성진 남옥이 남주현 노경서 노선영 노승욱 노연주 노은성 노진봉 노창수 노현우 도미항 도병환
라제스 류경림 류기옥 류명희 류무재 류민 류병남 류정현 류정희 류준식 류진교 류현정 마정숙 명예영 명일택 문금희 문무출 문미현 문상조 문소영 문수업 문예진 문정미
문태희 민경옥 민경원 민정희 민천식 박경록 박경미 박경선 박경희 박광규 박광일 박귀선 박귀조 박근식 박금옥 박금자 박금화 박기순 박남숙 박노숙 박노옥
박노희 박다은 박동렬 박동승 박두례 박두임 박만수 박명수 박명자 박명희 박무연 박문화 박미경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균 박민지 박병석 박병연 박복희 박분예
박상렬 박상민 박상욱 박상주 박상진 박상현 박선희 박성숙 박성연 박성옥 박성은 박성희 박세환 박수금 박순기 박순남 박순선 박순예 박순임 박승현 박연옥 박영구
박영미 박영빈 박영숙 박영애 박영옥 박영욱 박영택 박영혜 박영희 박예원 박예진 박요안나 박원권 박원동 박원하 박유경 박유리 박유분 박윤경 박윤만 박윤숙 박윤정
박은경 박은빈 박은향 박은혜 박은희 박인순 박임순 박재영 박재훈 박점순 박정숙 박정열 박정원 박정태 박종열 박종진 박종희 박준향 박지영 박진규 박진숙 박찬욱 박창곤
박천만 박천순 박춘식 박태영 박태용 박태철 박해명 박해옥 박해정 박행임 박현미 박현자 박현주 박혜자 박호완 박화자 박회승 박효종 박희숙 박희진 박희필 방옥주 배견호
배광식 배광중 배다분 배동석 배명분 배선화 배세원 배수옥 배연탁 배영오 배영진 배은혜 배정희 배제창 배종화 배지성 배지혜 배해동 배혜영 배호순 백남승 백성희 백연화
백용선 백우현 백윤덕 백은주 백주현 백태경 백태승 변동철 변영주 변은아 변진오 복성례 빈성기 서검자 서경석 서경식 서길수 서노아 서동규 서동성 서만석 서병례 서상모
서선조 서설규 서성표 서수용 서순란 서여진 서영태 서영희 서요한 서원태 서은실 서정숙 서정오 서정진 서제철 서주영 서창용 서혜민 서희정 석영아 석진무 석희숙
설오진 성기진 성기철 성다혜 성명자 성상봉 성석문 성선자 성성용 성숙이 성영순 성옥준 성은혜 소경혜 소병희 손경태 손계내 손기주 손길남 손대영 손명희 손미정 손사이
손수양 손순자 손순택 손영숙 손영애 손영희 손원규 손장희 손정춘 손정화 손제구 손주담 손주영 손주진 손춘지 손하은 손호연 송민지 송백선 송석길 송영희 송인문 송인순
송정욱 송태경 송활신 시진호 신경심 신경아 신경영 신경옥 신광범 신동주 신명자 신명희 신미경 신성권 신영희 신원관 신원균 신유식 신은주 신인숙 신정숙 신정순 신정식
신정혜 신종수 신진영 신천분 신학근 신해범 신현국 신현종 신현진 신현태 신혜란 심경은 심계화 심미송 심성희 심숙이 심순애 심연순 심은숙 심은희 안미상 안병훈
안석산 안성민 안소명 안숙향 안춘자 안혁희 안현순 안혜선 안희철 양금 양미희 양승혜 양아름 양영숙 양영희 양은숙 양재덕 양태옥 양혜민 여영애 여은경 예미영 오명숙
오병옥 오상철 오상희 오성혜 오숙현 오순복 오영림 오은주 오은향 오종 오지연 오천세 오철태 오태희 오현진 오혜숙 우광하 우덕영 우덕희 우세진 우순희 우영근 우영신
우종철 우주연 우현진 우홍열 원난화 원순태 원애령 원용훈 위상열 유경생 유경자 유경희 유동균 유선경 유송자 유예숙 유재선 유재연 유정순 유춘자 유해선 유형남 육정희
윤경숙 윤계수 윤관희 윤대근 윤덕재 윤동훈 윤명희 윤미라 윤성권 윤성혜 윤신광 윤영애 윤예주 윤옥자 윤외숙 윤우분 윤재원 윤정순 윤현정 윤형남 은순희
이각일 이강남 이경주 이경호 이경희 이광석 이광순 이광우 이광해 이광희 이국현 이귀분 이귀조 이금자 이기영 이길수 이낙정 이대봉 이대현 이도화 이동걸 이동경
이동욱 이동진 이득수 이란경 이말수 이망년 이명숙 이명신 이명옥 이명자 이명희 이문화 이미숙 이미영 이미희 이봉진 이부희 이분희 이상구 이상준 이상돈
이상복 이상분 이상승 이상욱 이상조 이상천 이상현 이상혜 이상희 이석환 이선애 이선희 이성덕 이성미 이성은 이성철 이성택 이성희 이세호 이수향 이숙자 이숙희 이순기
이순현 이순희 이승호 이신영 이애자 이에스더 이영미 이영삼 이영상 이영수 이영숙 이영아 이영옥 이영익 이영자 이영재 이영희 이옥남 이옥란 이옥순 이옥연
이옥자 이용문 이용철 이용화 이원세 이원태 이원호 이윤정 이윤종 이윤환 이은섭 이은실 이은심 이은지 이인섭 이인숙 이인태 이인혜 이재윤 이재인 이재혁 이재희
이정관 이정미 이정순 이정아 이정애 이정인 이정일 이정임 이정화 이종구 이종기 이종대 이종돈 이종맹 이종숙 이종열 이종원 이종호 이종활 이주선 이주원 이준수 이중근
이진태 이차수 이찬수 이찬숙 이찬하 이춘선 이춘자 이칠동 이필희 이하경 이하은 이학자 이해란 이해순 이향자 이현미 이현섭 이현숙 이현우 이현재 이해숙 이해영 이해원
이화자 이효대 이후남 이희석 이희숙 이희순 임경연 임나현 임만기 임미숙 임숙이 임옥자 임은복 임재연 임종필 임준화 임차연 임춘화 임태숙 임필술 임한수 임해순 장 충
장계순 장기태 장린규 장병구 장선헤 장성규 장세영 장순희 장영숙 장옥순 장옥희 장원석 장은수 장은주 장의자 장인권 장재호 장정옥 장진환 장혜은 장혜정 장회종 전국진
전미정 전민아 전삼희 전상훈 전순남 전양자 전영애 전유자 전윤희 전은진 전재락 전정두 전종호 전종훈 전태석 전현석 전현숙 전후남 정경자 정경진 정광주 정국성 정기홍
정동화 정만석 정미경 정미라 정미영 정미주 정병일 정복순 정상진 정선문 정선숙 정선향 정성근 정성달 정성훈 정수정 정순금 정순덕 정순자 정승용 정승한 정시찬
정애현 정연민 정연옥 정연죽 정영덕 정영일 정요셉 정용죽 정원희 정윤옥 정은숙 정은주 정은화 정이슬 정인숙 정인정 정인하 정재민 정정봉 정정태 정정화 정정환
정종찬 정종환 정좌정 정주성 정중화 정진윤 정창숙 정한솔 정해근 정해영 정현숙 정혜영 정화자 조경애 조경연 조경혜 조국현 조기동 조두현 조말연 조문영 조미향 조성경
조성일 조성희 조순경 조순자 조영석 조영숙 조예인 조은덕 조은주 조은향 조인애 조정림 조정숙 조정애 조정혜 조종화 조준모 조혜경 조혜영 조혜정 조후근 주옥자 주은혜
주형숙 주효진 지동춘 지승렬 지영애 지주희 지현구 지화진 진명희 진영태 차경득 차미선 차미옥 차애경 차인숙 차해경 채경석 채경현 채경희 채동선 채민수 채선규 채성수
천경자 천경조 천성은 천옥자 천원석 최 훈 최경숙 최경신 최경자 최경희 최남출 최대해 최도정 최두근 최밀숙 최명화 최무숙 최미자 최미화 최병현 최보부 최복임 최성호
최세은 최소연 최소희 최수현 최수희 최순옥 최순임 최양규 최연희 최영규 최영미 최영애 최영택 최영희 최옥순 최용길 최원섭 최원연 최유화 최은임 최은주 최은희
최익현 최인숙 최인순 최장선 최재하 최정숙 최종선 최주현 최진미 최찬미 최창명 최창현 최태원 최태호 최현경 최현숙 최혜실 최화옥 춘자 태영철 표재만 표주현
하륜자 하미숙 하복희 하재희 하정호 하창호 하현자 한경숙 한국수 한도경 한명희 한병남 한영애 한은경 한은혜 한정애 한준우 한진석 함성도 허강일 허금자 허문정
허배도 허수이 허옥순 허정희 허진향 허택민 허현 허훈영 허희경 현지원 홍동숙 홍미애 홍복순 홍석현 홍선옥 홍성택 홍성훈 홍수경 홍숙자 홍영환 홍용선 홍태숙 홍현창
홍희숙 황가영 황금숙 황명숙 황미애 황보수 황보원애 황보화숙 황봉순 황영미 황옥선 황우구 황윤린 황윤락 황정선 황정주 황준욱 황지영 황태식 황현주
황현구 황하준 황화도

대신대학교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인재양성의 요람!

입시일정 안내

2019학년도 학부수시모집

원서접수 2018. 9. 10(월) ~ 9. 14(금)
전형일 2018. 10. 15(월)

2019학년도 신대원모집

원서접수 2018. 11. 12(월) ~ 11. 15(목)
전형일 2018. 11. 26(월)

2018학년도 대학원후기모집

원서접수 2018. 6. 11(월) ~ 6. 13(수)
전형일 2018. 6. 25(월)

2019학년도 목회신학원 후기모집

원서접수 2018. 7. 23(월) ~ 8. 22(수)

2019학년도 목회신학원 전기모집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20(수)

모집학과 안내

|학부| 신학과 / 사회복지학과 / 상담영어학부 【상담심리전공, 영어전공】

음악학부 교회음악전공 【성악, 작곡, 오르간】

기악전공 【피아노, 관현악, 플루트】

실용음악전공 【워십리더,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실용작곡, 재즈피아노】

* 2019학년도 모집학부(과) 조정으로 인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 중이오니 심의 결과 결정에 따라 모집요강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추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과(Th.M.) / 영어영문학과(M.A.) / 사회복지학과(M.A.) / 음악학과(M.Mus.)

박사과정

신학과(Ph.D.)

|신학대학원| 신학과(M.Div.)



대신대학교 부설

|목회신학원|